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 성과 및 추진 방향

2019. 1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 I. 아세안 지역 금융협력 필요성 1
- II. 아세안 지역 금융협력 그간의 성과 4
- III. 향후 추진 계획 11

I.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 필요성

1. 아세안 국가 개황

국가	명목GDP (억 달러, '18)	1인당 GDP (달러, '18)	실질GDP 증가율 (%, '18)	인구 (만명, '18)	교민현황 (명 '18)
1 인도네시아	10,225	3,871	5.2	2억6,416	22,084
2 태국	5,049	7,448	4.1	6,779	20,123
3 필리핀	3,309	3,104	6.2	1억660	85,103
4 말레이시아	3,586	11,072	4.7	3,239	20,861
5 싱가포르	3,641	64,579	3.1	564	20,959
6 베트남	2,413	2,551	7.1	9,458	172,684
7 미얀마	687	1,300	6.8	5,283	3,860
8 캄보디아	244	1,504	7.5	1,625	11,969
9 라오스	181	2,566	6.3	706	3,050
10 브루나이	136	30,668	0.1	44	374

* 출처 : IMF WEO, 교민현황 외교부

□ '17.11월 인도네시아 순방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 천명

※ 한-아세안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신남방 정책 대상국에는 인도 포함)

○ 특히 3P*, 즉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아세안 국가와 인도가 단순 소비시장이나 생산기지가 아닌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

* People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공동체
Prosperity :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공동체
Peace :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2.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 필요성

① 아세안의 높은 성장 가능성

- 아세안 지역 인구는 '18년 6억 4,774만명에서 '24년 6억 8,841만명으로 증가 예상
- 아세안 GDP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6% 성장 예상('18년 2조 9천억 달러 → '23년 4조 1천억 달러) 예상

* 출처 : IMF WEO

② 금융회사의 높은 수익률

-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은 국내은행에 비해 높은 ROA 실현하였음 (ROE는 국가마다 상이)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수익성 ('18년, %)>

	한국	베트남	인니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ROA	0.56	2.05	1.37	0.77	1.76	2.01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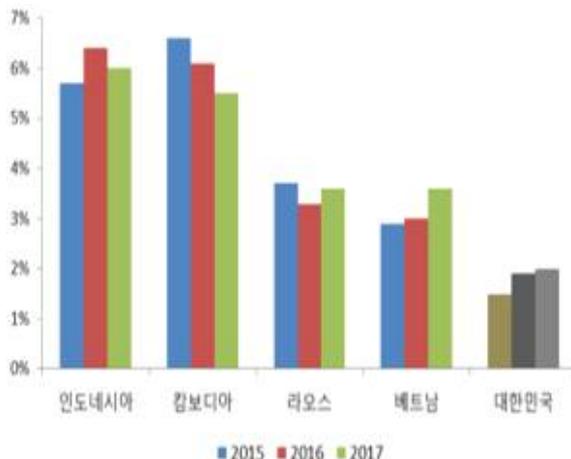
* 출처 : 금감원, 일부 재무현황 미제출 금융회사 미포함

** '17년도 국내 은행: (ROA)0.48 '16년도 국내 은행: (ROA)0.11

- 순이자마진(NIM)과 예대마진 또한 국내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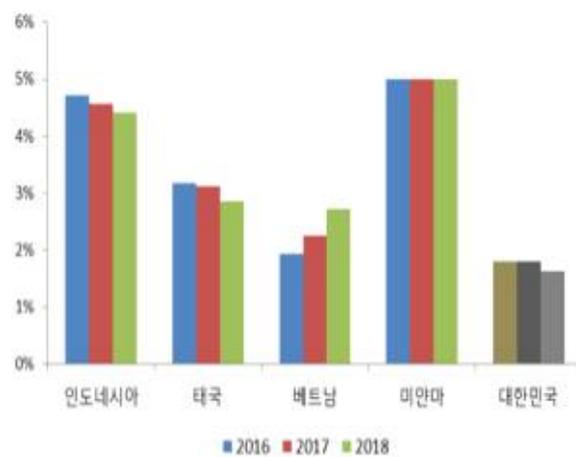
*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 : ('17)1.63% ('18)1.67% ('19.6)1.61% (금감원)

<순이자마진(NIM) 추이>



출처: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예대마진 추이>



출처: IMF

③ 인프라 및 설비투자 증가

- 아세안 지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각국 정부는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확대 공급 정책 추진중
-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공식출범('15.12)으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예상

*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물리적·제도적·인적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춘 개념

< 아세안지역 인프라 시장 예상 투자액 >

(단위 : 억달러, %)

		2018	2022	2026
인프라시장 예상 투자액	인도네시아	512	569	626
	베트남	151	171	191
	미얀마	33	38	42
	캄보디아	17	29	33

*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 금융분야는 아세안 경제와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추진

II.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 그간의 성과

- ◇ 아세안과의 금융분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현을 위해
 ①국내 금융회사 진출 활성화, ②금융인프라 협력 등 한국 금융 발전 경험 노하우 공유, ③당국간 협력관계 강화 등 추진
 ⇒ 한-아세안 경제발전 및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

1. 국내 금융회사 및 기업 진출 활성화

1. 금융회사 진출 성과

- '19.6월말 현재 총 43개국에 89개 금융회사, 433개 점포가 진출 하였으며, 아세안에는 64개 금융회사가 150개의 점포를 운영중 (전체 해외진출 금융회사 점포 수 대비 약 35%)
- '11년말 대비, 전체 해외진출 금융회사 점포는 89개 증가하였으며, 아세안에서는 72개 증가(증가분의 약 81%)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아세안 전체 진출 점포수 대비 약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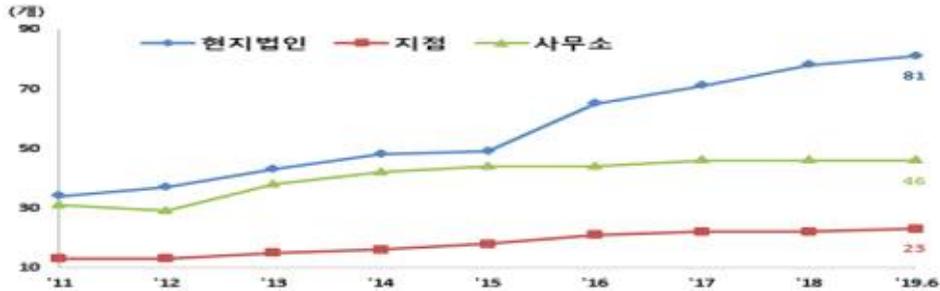
<아세안 및 주요국에 진출한 연도별 국내 금융회사 점포 개수>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19.6말
ASEAN 전체*	78	79	96	106	111	130	139	146	150
베트남	41	39	42	44	46	49	50	53	54
인도네시아	12	12	17	18	19	24	24	25	23
미얀마	-	2	7	11	12	17	21	21	22
싱가포르	15	16	18	19	18	19	18	18	20
캄보디아	3	3	3	5	6	8	10	13	15
필리핀	3	3	4	5	5	7	7	7	7
라오스	-	-	-	-	1	2	4	4	4
태국	2	2	3	3	3	3	3	3	3
말레이시아	2	2	2	1	1	1	2	2	2
인도	10	14	14	14	12	14	18	18	21
중국	66	68	72	68	66	64	64	63	59
미국	50	51	53	52	51	52	55	55	53
영국	24	24	26	25	27	25	26	27	25
전 세계	344	355	382	391	393	407	431	437	433

*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국에 진출

□ 아세안 지역의 국내 금융회사 진출 형태도 사무소나 지점보다 현지법인이 크게 증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진출형태별 점포수 추이>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196말
현지법인	34	37	43	48	49	65	71	78	81
지점	13	13	15	16	18	21	22	22	23
사무소	31	29	38	42	44	44	46	46	46

-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은 법인 설립, 현지 금융회사 지분 확보, 현지 고용 및 현지 중심 영업 확대 등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현지화 추진

< 현지화 성공 사례 >

- (신한은행, 베트남) 한국 주재원 위주에서 현지 채용 인력 중심으로 인력 현지화
 - 직원 뿐만 아니라 책임자·부서장 비중도 크게 확대
 - (현지 책임자 수) '14년 58명(63%) → '19년 231명(85%)
 - (현지 부서장 수) '14년 0명(0%) → '19년 42명(88%)
- (KEB하나은행, 미얀마) 14년 법인 설립 단계부터 현지인 중심 경영/영업 시스템을 구축(현지직원 99.8%, 모든 문서 미얀마어 작성)하고, Digital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지 고객 대상 찾아가는 영업을 통해 현지 열위의 인프라를 극복
 - 현지인 대상 대출 100%, 미얀마 전지역 진출, 설립 5년만에 미얀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업계 6위(190개 업체중) 달성
- (우리은행, 캄보디아) 금융업이 고성장(연 20%이상)하는 가운데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금융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하여 상업은행보다는 소액여신금융사 및 저축은행 인수(M&A)를 추진하여 영업기반 확보 → 매년 40~50% 고성장 실현중

< 아세안 지역 금융회사 진출 특징 >

□ 금융업권은 높은 경제성장률·금융산업 성장률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아세안 지역을 우선 진출 대상으로 고려

-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아세안 지역 자산 비중은 전체 대비 약 14%에 불과하나 수익 비중은 약 30%를 차지('18년말 기준)

<지역별 해외점포 재무현황('18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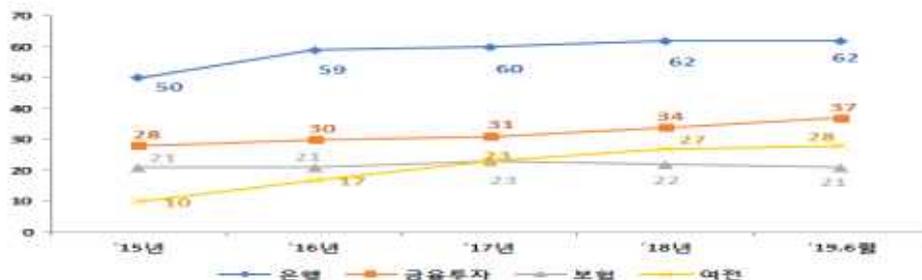
구 분	자산(억\$)		당기순이익(백만\$)		
		구성비(%)		비중(%)	
아시아		928.4	(51.9)	1,015.4	(79.1)
	아세안	249.1	(13.9)	157.2	(29.2)
아메리카		651.1	(36.4)	114.1	(8.9)
	미국	610.2	(34.1)	60.9	(4.7)
유 럽		193.5	(10.8)	143.8	(11.2)
	영국	143.8	(0.8)	123.7	(9.6)
합 계		1789.7		1282.9	

□ 국내 금융회사는 아세안 지역에 은행업권 진출 뿐만 아니라 비은행(non-banking)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다각화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

■ (신한은행 사례) 은행 단독 진출에서 카드, 금융투자, 소비자금융 등 금융계열사 동반 진출 → 단순 은행업에서 금융지주사의 장점을 활용한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하여 시장 창출하는 효과

* (베트남) '14년 은행 → '19년 은행, 카드, 금융투자, 소비자금융, 생명
(미얀마) '14년 은행 → '19년 은행, 소비자금융

<권역별 해외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아세안 지역이 한류에 우호적인 점을 활용하여 한국계 문화콘텐츠 및 한국 소비재 기업과 연계한 신용카드 및 리테일 사업 등의 영업 활성화

■ (신한은행 사례, 베트남) 박항서 감독을 은행 홍보대사로 계약('18), 현지 언론 광고 모델로 활용하여 고객 수 증대 등 영업성과 창출 및 대외 인지도 상승

- 은행 거래 고객 수 35% 증가('17년 1.04만명 → '19년 8월 1.4만명)
- 인터넷뱅킹 고객 수 152% 증가('17년 12만명 → '19년 8월 31만명)

2. 아세안 진출 국내은행의 한국기업 및 현지 지원 성과

- '19.6월말 현재 아세안 진출 국내은행의 현지 대출규모는 약 167억불로서 '15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이 큰 비중 차지(약 80%)
 - 이 중 현지 한국 기업 대상 대출은 약 46억불로서 '15년말 36억불 대비 약 30% 증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기여 확대
 - 현지인 및 현지기업 관련 대출은 약 100억불로서 총대출금 대비 약 65%를 차지하여 현지화가 확산되는 모습



* 현지인(교포 제외) 대상 대출 포함

3. 아세안 지역 핀테크 협력 강화

-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이 중요하므로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

* 핀테크 기업 진출지역 수요조사('19.5월, %): (동남아) 58, (미주) 14, (유럽) 4, (중일) 24

- 그간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6회)* 및 핀테크랩 개소(3회)**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 진출을 원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현지 유망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진출 활성화 지원

* '15년이후 해외 데모데이는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6회를 아세안국가에서 개최 (캄보디아('16.6월), 싱가포르('16.6월), 말레이시아('17.12월), 베트남 호치민('18.10월), 인도네시아('19.9월), 베트남 하노이('19.10월))

** 금융회사 핀테크 랩 해외진출 현황: 신한금융(베트남 호치민('16.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9.9월)), 우리금융(베트남 하노이('19.10월))

-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아세안 지역 진출 정보 제공 및 법률·특허·회계 등 전문기관 매칭 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 준비 핀테크 기업 대상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 진행 중(한국핀테크지원센터)

4. 아세안 진출 중소기업 보증 확대

-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8년 신보(4월), 기보(12월)에서 해외진출기업 보증제도 시행
- 도입 이후 신보 582억원, 기보 66억원 등 아세안 지역 진출 55개 업체에 총 648억원을 지원 완료('19.10월말 기준)

< 해외진출기업 보증제도 >

- (해외투자자금 보증) 국내 지배기업이 해외 종속기업에 투자·대여·지급할 목적의 해외투자자금을 보증 지원
- (해외사업자금 보증) 해외 종속기업이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내 지배기업이 발행하는 보증신용장(L/C)*을 보증

* 국내기업이 해외 종속기업의 현지자금조달을 위해 금융회사에 의뢰해 금융회사가 현지법인 금융회사에게 발급하는 신용장

2. 한국 금융 발전 경험 노하우 공유

1. 금융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금융 분야 인프라는 금융 시스템과 거래의 표준을 제공하므로 금융인프라 수출을 통해 현지 경제·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
- 또한, 한국과 유사한 금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금융인프라에 익숙한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 및 진출에 큰 도움
-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국내 금융인프라 기관은 KSP컨설팅(기재부), ODA사업(KOICA)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인프라*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중

* 예) ①부실자산관리와 금융회사/기업 구조조정, ②지급결제시스템, ③저신용자 대책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④신용평가금융정보 관리 인프라 등

- 최근 5년간('15~'19) 베트남에 금융인프라 컨설팅·수출 실적이 집중(16건) 되었으며 인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와도 교류 지속(각 2~3건)

< 국내 금융인프라 협력 사례 >

- (금융결제원, 캄보디아) 실시간계좌이체시스템, 모바일뱅킹공동플랫폼 등 국가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17.9~'19)하여 현재 캄보디아 8개 주요은행이 시범실시 중
→ 캄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 효율성 향상에 기여, 시범실시 은행에 국내은행 3곳이 포함되어 한국형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기대
- (NICE, 베트남) 베 신용정보집중기관(National Credit Information Center, NCIC)과 협업하여 현지 메이저 은행인 비에틴 은행에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을 구축('17~'19), 베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
→ 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 고도화 및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 산은, 기은 등 한국 정책금융기관에서도 개발 금융, 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 한국 정책금융 노하우 전수를 위해 노력중

* (산은) 베트남 개발은행(VDB)의 구조개혁을 위한 개발금융 관련 컨설팅 협의('19), (기은) 미얀마 관계당국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자문('18,'19) 등

< 국내 금융인프라 수출 개요 >

한국거래소	증시 IT 시스템 수출, 자본시장 발전 컨설팅 등 * 필리핀·태국·아제르바이잔·베트남 등에서 증시(거래체결), 시장감시, 전자공시 및 파생거래 청산시스템 등 수출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거액결제·소액결제·해외송금 등) 구축 및 컨설팅 * 베트남, 나이지리아,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등
예탁결제원	증권대차 시스템·펀드거래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 태국 증권대차-REPO 시스템 수출, 인니, 베트남 컨설팅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 태국, 베트남, 페루 등 자문·컨설팅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및 기구 구축 관련 컨설팅, 예금보험금 지급제도 구축 * 몽골 예보제도 구축 및 예금보험공사 설립 등 17개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구축 및 개선 관련 컨설팅 *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 다수국가
KCB/ NICE	개인·기업 신용평가모형 개발 관련 컨설팅 *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강화 컨설팅, 온비드 시스템 구축 등 * 베트남,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등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금융정보 관리 인프라 구축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컨설팅, 자동차 의무보험 등 제도 컨설팅 * 몽골 등

2. 초청연수, 자문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금감원·해외금융협력협의회·금융연수원 및 개별 금융공기업이 운영하는 현지 공무원 초청연수, 자문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금융정책·감독 방안을 전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수원국의 수요에 맞춘 금융시장 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
- * ① (금감원) 아시아 신흥국 금융감독 담당자 대상 '단기 초청연수(7일)와 장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FSPP)' 및 '감독검사 수견프로그램(OJT, 10주)' 등
- ② (해금협·금융연) 매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4~5일 과정) 등 진행
- ③ (예보·캠코 등 금융공기업) 매년 관련 금융제도·현장연수 진행

3. 금융당국간 협력관계 강화

① 금융당국간 교류 활성화

- 신남방 국가와 상호 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금융당국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양국 금융협력·감독 방안 논의
- * 베트남(재무부, 중앙은행): '18.3월 금융위원장 방문, '19.10월 상임위원 방문
인도네시아(중앙은행, 금융감독청) : '17.4월, '19.9월 금융위 부위원장 방문 등
- 금융협력포럼, 당국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금감원·해금협 주관 국제행사** 등을 통한 교류 증대
- * 금감원은 매년 국제세미나, 해금협은 매년 국제금융협력포럼(12월) 및 현지 금융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여 해외 금융당국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② 금융당국간 MOU 체결을 통한 금융분야 협력 강화

- 그간 아세안지역 6개국 13개 금융당국과 MOU 체결
- * 인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 재무부 등
- 정보교류와 감독협력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협력 분야별 MOU*를 체결함으로써 구체적 협력 사업의 기반 마련
- * 싱가포르 MAS 핀테크 MOU('16.10월, '18.7월) 베트남 핀테크 MOU('18.3월)

IV. 향후 추진 계획

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한국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 지속 모니터링 및 해외 금융당국과 애로사항 협의
-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베트남, 인니 등 아세안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동 지역의 금융회사 영업활동 건전성 감독 철저

* 19년 해외진출 수요 30건중 13건이 아세안 지역 ('18년말 조사, 금감원)

② 아세안 국가 금융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 ODA 프로그램 등에 금융부문 지원 확대, 금융분야 연수 프로그램 대상에 아세안 국가 금융당국·기관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인프라의 아세안 국가 진출 지속 지원

- 특히, 지급결제·통합자금수납시스템 등 IT 분야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 아세안 국가 대상 디지털 금융 분야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ODA 프로그램 활용 등 추진

③ 아세안 지역에 핀테크 기업 진출 지원 강화

-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아세안 지역 핀테크 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및 법률·특허·회계 등 전문기관 매칭 컨설팅 지원
-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함께 해외 진출 협력 모델 확산 및 데모 데이·투자홍보(IR) 등 개최하여 우수 핀테크 기업 투자 유치 및 홍보 기회 지속 제공

④ 아세안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 아세안 국가 금융당국과의 방문·면담 확대, MOU 체결(핀테크 분야 확대) 등 협력기반 마련